

다산포럼

민병욱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최종 관문이었다는 '책문(策問)을 읽고 무릎을 쳤다. 출제문과 답안이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다. 더욱 놀라운 건 엄격한 왕정국가, 임금의 한마디에 생사가 걸렸을 그 시대에 응시자들은 거침없이 왕의 폐부를 찌르는 직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왕의 심기를 어떻게까지 건드리고도 무사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진사시나 생원시에 합격한 33명이 전시(殿試)에서 마지막으로 치른 시험이 책문이었다. 출제자인 임금이 정치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응시자들의 대책을 묻는 형식이었다.

이미 급제된 사람만 보는 시험인 만큼 낙방은 없고 순위에 따라 최고위 관리, 즉 왕의 정치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지를 가능했다고 한다. 아주 현실적인 인재들을 방식이었던 셈이다. (김태완 편저, '책문-시대의 물음에 답하다'·소나무출판사)

광해군 때 이런 문제가 나왔다. "내가

나라의 대업을 이어받긴 했지만 나는 지혜도 모자라고 현명하지도 않다. 깊은 뜻과 실용을 건너야 하는데 건너갈 방법이 모르듯,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인재를 불러들여 나랏일을

언책(言責)보다 어려운 건 없다

해결해야 하는데 선비들은 의견이 달라 서로의 차이를 조정할 길이 없고, 서로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화합을 이루려는 미덕도 찾아볼 수가 없다. 도대체 어찌해야 되겠는가?"

이에 임숙영은 이런 글을 써 올렸다. "어진 신하만이 바르게 간언할 수 있고 현명한 임금이 간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임금의 허물을 바로 잡으려다 도리어 임금에게 죄를 받고, 이 때문에 위로 조정에서부터 아래로 초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하는 것을 조심하게 되었습니

다. 아버지는 자식이 바른말을 할까 경계하고 형은 아우가 직언을 할까 경계합니다. 저마다 이 시대의 금기가 된 직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잘 보이고 아부하는 것이 풍조가 되고 부드럽게 꾸미는 것이 절개와 지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모두 전하게서 열어놓은 것입니다."

대답하다. 왕이 직접 물어볼 글을 이렇게 쓰는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나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하의 직책 중 군주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충고하는 언책(言責)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며 외척의 교만과 횡포를 제재하고 궁녀들의 규정을 벗어난 인사개입을 금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끝내 "임금의 잘못이 곧 국가의 병"이라며 "전하는 자만을 삼각하게 경계하십시오. 자만하면 뜻이 날로 교만해지고, 마음이 날로 게을러지며, 덕이 날라니 깎이고, 공이 날라니 무너집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아무리 전하의 덕을 칭송하더라도 전하게서는 믿지 마십시오"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역시 광해군 때의 조위환도 "임금님 신

상에 관한 말을 하면 곧바로 배척당하고 궁궐에 관련된 말을 하면 지방관으로 보직이 바뀐다"면서 "이게 전하게서 간언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결만 번지르르한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세종 때의 이석형도 "거리낌없이 자기 의견을 내기는 어려워지고 (임금의) 마음에 드는 계획만 진술하려는 생각에 점차 익숙해져 아첨하는 말만 날라니 늘어간다"고 경계했다. 신숙주도 "실질한 말을 두려워하고 감직한 말을 싫어한다면 그제 어찌 거리낌없이 언로를 얻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왕에게 묻고 있다.

위아래 소통이 바로고 원활해야 바른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위로는 임금부터 아래로는 상인까지 말 길어 트이고' '깃털처럼 보잘것없는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정치의 도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소통의 정치가 화두가 되고 있다. 거기에 시국선언은 매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고루한 옛날이야기라고 치부하지 말고 모두 한번쯤 책문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여야, F1 지원법 약속 이번엔 꼭 지켜라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의 국회통과가 6월 국회에서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6월 임시국회가 공전되면서 F1 지원법의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술한 여여국결 끝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F1 지원법 제정이 이번 국회에서도 무산된다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0 F1 대회가 불과 1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법의 통과가 또 다시 지연된다면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도는 F1 경주장 건설비용 3천400억원 중 1980억원을 대주요자금을 통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전남도가 분담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F1 지원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

으면 국고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PF를 통한 자금조달 역시 F1 지원법이 이번 국회에서 제정된다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사업 전반에 걸쳐 난관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F1 지원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여당 단독국회가 되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F1 지원법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도 수차례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사항이다. 정치에 있어 유권자와의 약속과 신뢰는 생명과도 같다. 따라서 여야 간 주요 쟁점 사안이 아닌 F1 지원법이 또다시 쟁점의 희생물이 돼 표류할 수는 없다.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는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 물밑 접촉 등을 통해 F1 지원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여야를 적극적으로 설득시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문제점 촘촘히 보완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다음달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과 치매·중풍 등을 앓는 노인성 질환자의 수발을 국가가 떠안는 고령사회의 선진국형 노인복지 서비스다. 가족이 책임졌던 노인양양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진다는 점에서 도입 당시 노인복지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첫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됐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행복감을 끌어올리면서 가족들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였다는 점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지난 5월 말 현재 요양시설 2천16곳, 재가시설 1만3천15곳으로 도입 당시보다 각각 2배가 늘었다. 서비스 신청자도 47만2천여 명으로 1년 만에 약 20만 명 증가했다.

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 수혜등급을 인정받고도 4분의 1 정도는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인프라의 지역적 편중과 열악한 공공인프라도 개선돼야 할 과제다.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과 재가서비스 급여액의 편차 수령 등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지방감찰청이 광주·전남 38개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8개 요양병원 및 3개 요양원에서 27명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이 조속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줄이는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無等鼓

역대 임금들은 항상 여편(閹閹)을 궁극에 두었다. 임금들은 왕위 계승자로 정해진 순간부터 철저하게 민간에서 분리돼 엄격한 프로그램에 따라 학문과 품성을 길렀다. 권좌에 올라서도 어지간해서는 일반 백성들을 대면할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군주들은 직접 민생을 살펴보는 기회를 원했다.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임금에게 올라가는 장계와 대신들의 구두보고는 눈과 귀를 속이는 일이 허다했다. 일방통행의 극치인 전제정치 행정의 특성상 현장의 관리와 궁궐의 대신이 결탁하면 임금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로 되었다.

이 같은 시스템 속에서 임금이 민생을 직접 살펴보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미복잠행'(微服潛行)이다. 임금들은 때때로 남루한 옷을 입고 직접 민간의 일상을 살피거나, 잘못 돌아가는 행정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미복잠행을 곧잘 다녔다.

양녕대군은 밤마다 평상복을 입고 기

방출임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대부분은 미복잠행으로 민생을 챙겼다. 조선 최고의 현군으로 평가받는 정조는 저잣거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몰래 들어가 세상살이의 참모습을 보고 실제 정치에 참고했다.

최근 '현대판 미복잠행'이라 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현장 방문을 놓고 여야간 입씨름이 뜨겁다. 이 대통령이 서울 이문동 떡볶이집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폄해 발언이 나와 또 한 판 설전이 벌어졌다. 느닷없는 떡볶이 논쟁은 서민을 향해 다가가는 여권에 대한 야당의 견제로 풀이된다.

'떡볶이 시비'로 일어 벌어지는 여야 설전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총체적 난국에서 '근원적 처방'을 목말라하는 국민에게 떡볶이집 '이벤트'는 너무 가벼워 보인다. 거두절미하고 비판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모습 또한 미덥지는 않다.

떡볶이집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떡볶이 논쟁



기고

문인



광주가 두 번째 도전 끝에 2015하계 U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민주·인권·평화와 첨단산업도시에서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015하계 U대회는 170여개국 1만3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광주에 머물다 가면서 유무형의 소득을 남겨주는 동시에 광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제 우리 앞에는 2015하계U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하는 과제

우리 광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도로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넘쳐나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신호를 무시하는 오토바이, 비밀비재한 불법 유티 등 기초질서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위상 정립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지구촌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U대회 또한 성공할 수 없다.

각계각층 기관과 단체,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교통질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 나가야 하며, 생활 속에 반드시 정착

시민의식 한 차원 높은 도약 필요하다

가 남아있다. 사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고 시작은 이제부터라 하겠다. 광주는 국제대스포츠포럼(FISU)에 역대 최고의 대회를 치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올 연말 안에 법안 제정이 완료되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정의화 유치위원장이 의원발의 입법으로 준비중이며 국회에서도 반대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범국민적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경기장시설, 선수촌, 교통 등 FISU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15광주하계U대회 마스터플랜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이 만들어질 것으로 믿는다.

이와 함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시민의 기초질서 지키기와 같은 선진 시민의식 함양에 가능한 시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5대방 6대주를 누비며 대회 유치를 온몸을 던져온 박광명 시장도 'U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과 대회운영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기초질서 지키기 등 1등 광주 1등 시민다운 시민의식 향상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실, 교통사고 전곡 1위라는 오명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또, 우리 광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빼어난 경치, 편안한 숙박시설, 맛있는 음식 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따뜻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친절함과 마음과 질서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하고 질서있는 선진시민의식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찾고 싶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질서있고 아름다운 도시는 사람을 부르고 돈을 부른다.

국제대회를 앞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짐 또한 새롭게 다져야 한다. 시민의식의 한 차원 높은 도약이 필요한 때다.

우리 모두 바로 오늘부터 좋은 운전습관을 하나씩 몸에 익혀보자. 출퇴근 길에 한걸음씩만 양보해보자. 교통신호를 반드시 지켜보자.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멈춰 서자. 날마다 반복되어 우리의 좋은 습관으로 정착된다면 광주의 거리 모습은 분명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곧 우리 모두의 소중한 약속이자 '1등 광주'로 성장하는 초석이며,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채용시장 질서위해 구직자에 '연봉' 사전 공개했으면

채용시부터 연봉을 공개한다면 구직자들은 거기에 맞춰 구직을 할 때 연봉을 물라 믿고 들어간 회사의 월급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 취업자는 한두 달도 안돼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이런 경우 회사는 회사대로 사람을 다시 뽑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낭비를 감수해야 하고, 구직자 또 직장을 찾아 헤매야 나오는 재질로 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애초에 그 월급에 만족해서 다니려고 입사

를 지원했던 누군가는 애꿎게 탈락했으니 또 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다수 구직자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등록할 때 연봉을 사전 공개하길 바란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여기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들의 사원모집 광고도 연봉을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이라도 표기해서 구직자들이 알 수 있게 해주면 여러모로 좋을 듯하다.

<강은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NGO 칼럼

박필순



대안 의학 박사 '에모토 마사루'가 지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알 것이다. 이 책은 '물'이 말과 글씨, 음악 등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물 결정 사진으로 보여주며, 생명의 원천이자 삶을 지탱하는데 가장 필요한 자원인 물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야말로 물은 살아 숨 쉬는 생명체라는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심각하다. 동북호 물이 말라가면서 광주도 제한급수가 눈앞에 와있다. 장맛비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지만, 앞으로가 더

있다. 먼저, 매일 대하는 물을 제대로 알고, 소중한 마음을 갖자. 물을 제대로 알면 겸손함이 생길 것이다. 이토록 큰 존재인 물에, 강에 무관심했고, 내가 강을 죽이고 있구나 하는 반성도 절로 나온다. 정부와 기업만이 아니라,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강에게 죄인이다. 이제라도 강을 찾아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전하는 일이 우선이다.

또한, 제대로 알면 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문제다. 기상전문가들은 가뭄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이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프리카 난민과 기아의 원인은 살아있는 물이 없기 때문이다. 물은 지구와 인류에게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우리가 쓰고 먹는 물은 지구상의 물 1%도 안 된다는 것이다. 바닷물이 97%. 빙하가 2%, 나머지 1%가 지하수와 강물 등이다. 그런데 1%의 물마저도 우리는 버리고 있고 죽이고 있다. 계속된 개발로 인해 지하수는 고갈되어 가고, 강은 죽어가고 있다. 가뭄과 홍수 등의 재난을 극복하고, 병들어가는 강을 살리자고 한다면, 나라님과 전문가, 시민들은 그 원

인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 원 바른 답이 나온다. 사실 우리는 물과 강을 제대로 모르고, 관심도 없었다. 운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는 관심도 없고, 자주 찾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운하를 한다느니, 돈이 된다느니 하니 인기 폭발이다. 정작 관심은 강과 물을 살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돈벌이에

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개발의 시대에 하구둑을 막아 연안강을 죽이는 과오를 범했듯이, 준설과 보 설치로 강을 두 번 죽이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기업은 오만스럽게 강을 다스리고 공사를 해서 돈을 벌고, 놀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사람들에게 레저 공간으로 줄 수 있으니 좋지않느냐며 강 살리기와는 먼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이익을 쫓는 사람들은 동조하는 분위기다. 강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또한, 강은 모두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강의 주인이 아니라 여는 다른 생명들

과 함께 살아가는 강을 살리자고 한다면, 나라님과 전문가, 시민들은 그 원인을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 원 바른 답이 나온다.

사실 우리는 물과 강을 제대로 모르고, 관심도 없었다. 운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는 관심도 없고, 자주 찾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운하를 한다느니, 돈이 된다느니 하니 인기 폭발이다. 정작 관심은 강과 물을 살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돈벌이에

<녹색연합사무처장>

화재시 유독가스 뿜는 '샌드위치 패널' 사용 자제를

약 10년 전쯤 일어났던 화재 C랜드 화재 사건이나 작년에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의 공통점은 그 건물에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됐다는 점이다.

샌드위치 패널에는 보통 폴리우레탄이나 스티로폼이 들어가는데 폴리우레탄 발화성 실험 결과 직접 불이 잘 붙지는 않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불에 타면서 무겁게 번지는 현상을 보이고,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역시 열기에 노출되면 쉽게 심각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2차 주범은 유독 가스다. 특히 스티로폼 패널과 우레탄폼 패널은

불에 타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일산화탄소(CO), 시안화수소(HCN), 염화수소(HCl) 등의 연소가스가 3~4배 정도 높은 농도로 발생한다.

이런 물질에 당하면 그야말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마다. 그런데도 샌드위치 패널은 빠른 시공성과 저렴한 가격 때문에 공사장 임시건물, 공장, 창고, 축사 등에 많이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돈을 조금 더 들더라도 다른 재질, 화재시 유독가스가 덜 나오는 재질로 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권혁조·광주시 동구 내남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度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72	< F A X 227-0118 >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34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1	여론제작부 2200-679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회 1부 2200-612	체육팀 2200-691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 F A X 222-4267 >	사 진 부 2200-571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